

##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인주

부산 광안초등학교

박남수\*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

### 《요 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재의 G초등학교 4학년 아동 중 검사를 통해 선정된 학습부진아 4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21명씩 배치하고 실험집단에게 학습기술훈련을 실시한 다음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을 통해 학습기술이 부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지 못했던 학습부진아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써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던 기존의 학습습관이나 학습능력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

주제어 : 학습기술훈련, 학습부진아,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로 교육 적령기가 따로 없으며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

\* 교신저자(pohiro@hanmail.net)

평생학습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 요구되는 학교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과 학생의 암기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학습과는 달리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습관과 능력을 길러 지식의 양적·질적 급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기본 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다인수 학급에서의 획일적인 학습지도 등과 같은 제약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많은 수의 학습부진아를 출현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습부진의 누진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을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다수 학습부진아들의 경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다. 이것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단순한 암기 요인이나 지능요인 등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혹은 학습도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에 있으며, 따라서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Fralick, 1990).

근래 연구와 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학습기술(study skills)’의 훈련을 들 수 있다. 학습기술이란 학생이 스스로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업성취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관련된 일련의 기술을 의미하며(변영계 외, 1999), 여기에는 실제적인 학습사태에서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로서 학교의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이외에서의 자기관리를 비롯하여 수업에 관한 기술, 과제에 관한 기술, 시험에 관한 기술 등이 포함된다(Rothkopf, 1988). 이와 같은 학습기술의 하위기술 영역들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학습기술 관련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다음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 관련한 상관연구 또는 실험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학습기술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거나 실험연구를 통해 학습기술 훈련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Zimmerman과 Pons(1986)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자기관리 학습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Delucchi 등(1987)은 학습자들이 수업시간 이외에 학습에 소요하는 시간의 양과 학업성취(학업등수와 총괄시험점수)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할 때는 중요한 요인은 시간 양 보다는 다양한 자기관리 기술에 따른 효과적인 시간의 관리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Gall 등(1990)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습기술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

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안정미(1993)와 김용철(1998)은 학습기술 점수에 있어서 학습부진아가 일반 아동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은주(1998)는 초등학생의 학업수준에 따른 학습기술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초등학생의 학업기술 활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전화춘, 1998), 중학생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학생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기술상의 결함을 진단하여 그 증상에 따라 필요한 종류의 학습기술만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한 결과 학습기술 점수와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밝힌 연구(김남옥, 1991)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관관계 분석이나 실험연구 등을 통해 학습기술과 학업성취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학습습관이나 학습동기 등 학업성취와 관련한 정의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기술이 학습습관이나 학습동기 등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유형들은 학습기술의 효과로 나타나는 학업성취와 같은 표면적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러한 학업성취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Hurlbert(1985)는 인디언계 중·고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학습습관과 태도가 학업성취와 수업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Fralick(1990)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시킨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습관과 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통해 학습기술훈련은 학습습관과 태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Arthur(1994)는 학업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전략과 습관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루어진 연구들의 예로서는 초등학생의 학습기술 활용과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전영선, 2000), 초등학생의 학습기술과 학업성취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성윤득, 2001)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태도,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박한숙, 2000), 학습기술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 학습동기,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강태용, 2002),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연구(권용환, 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상관관계 분석이나 실험연구 등을 통해 학습기술과 학업성취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기술 훈련이 학업 성취 및 정의적 영역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학습기술훈련을 적용한 연구(김남옥, 1991)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적인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대상으로 학습기술훈련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기술훈련이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적 영역의 경우 그 특성상 단기간의 훈련으로 그 변화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나, 정의적 영역이 성적의 개인차 변량 중 약 25% 정도를 설명할 정도로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Bloom, 1971; 강태용, 2002 재인용). 또한 감성 지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증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삶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학습기술훈련이 학업성취 뿐 아니라 학습부진아의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학습기술의 구성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후, 이를 실제 학습상황에 적용하여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 3. 용어의 정의

### 1) 학습습관

학습습관이란 학습할 때 취하는 일관된 행동양식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의 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세 가지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란 타인의 조력 없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서 주도권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개념의 세 가지를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학습부진이란 지능은 정상이나 읽고, 쓰고, 셈하기(3R's)를 포함한 각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달한 아동을 의미한다(교육부,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G 초등학교 4학년 6개반 212명을 대상으로 6월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지진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4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업성취도가 60% 미만이면서 성적이 하위 20% 이하인 아동 42명을 선정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21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대상 아동을 4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학습활동에 있어서 교사나 부모 등의 타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아동 전기와는 달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습관이나 학습능력의 형성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각 집단별 배치된 연구 대상 아동의 구성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 아동의 구성

집단유형	4학년		계
	남	여	
실험집단	12	9	21
통제집단	13	8	21

먼저 사전검사를 통해 두 집단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동질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학습습관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동질성 분석 결과

변인	집단	실험집단(n=21)		통제집단(n=21)		t	p
		M	SD	M	SD		
학습 습관	주의집중행동	3.31	.73	3.23	.41	-.419	.678
	학습기술적용행동	2.61	.65	2.73	.42	.704	.485
	자율학습행동	2.50	.80	2.80	.49	1.411	.166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전 체	2.81	.64	2.92	.36	.692	.494
	학습전략	2.90	.67	2.70	.57	-1.038	.305
	학습동기	3.10	.71	3.09	.75	-.070	.944
	학습자아개념	2.35	.75	2.49	.56	.676	.503
	전 체	2.78	.56	2.76	.54	-.152	.880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및 각 하위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차가 없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의 구조는 [그림 III-1] 과 같다.



G1 : 학습기술훈련을 실시한 집단  
 G2 : 학습기술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  
 O1 : 사전 검사, O2 : 사후 검사, X1 : 학습기술훈련프로그램

[그림 II-1] 연구 설계

## 3. 연구 도구

### 1) 검사 도구

#### (1) 학습 습관 검사

본 연구에서는 박경숙 등(1976)이 제작한 학습습관 검사지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주

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문항 수는 각 영역별로 10문항씩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94이다.

<표 II-3> 학습습관 하위요소 및 문항번호

하 위 요 소	문 항 번 호
주의집중행동	1, 2*, 3*, 4*, 5*, 6, 7*, 8, 9*, 10
학습기술적용행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율학습행동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는 역산 문항임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는 권응환(2004)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맞게 재진술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지를 사용했다. 이 검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아개념의 세 영역에 걸쳐 전체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78이다.

<표 II-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요소 및 문항번호

하 위 요 소	문항번호
학 습 전 략	1, 2, 3, 4, 5, 6, 7, 8, 9, 10
학 습 동 기	8, 9, 10, 11, 12, 13
학습자아개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은 변영계와 박한숙(2000)이 개발한 초등학생용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 학습부진아의 인지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활용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생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꾸며져 있지만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4학년 학습부진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선하고 가능한 한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재구성했으며, 친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등생이 되는 길’로 제목을 붙여 차

시별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한 차시당 40분씩 총 28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5>와 같다.

<표 II-5>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학습기술 영역	차시	차시별 훈련 내용
자기관리 기술	1	학습기술의 개념과 필요성, 도움되는 이유
	2	시간 낭비 행동 알아보고 생활계획표 작성
	3	일일 생활계획표 평가지를 작성하여 반성해 보기
	4	학습 자료와 공간 조직에 필요한 내용 공부하기
	5	주간 평가지를 작성하고 생활 반성해 보기
수업참여 기술	6	듣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5가지 방법 알기
	7	듣기 다른 방법 알아보고 사례 등급 매기기
	8	수업중 주의 산만에 대처하는 방법 알기
	9	사례를 가지고 역할극 하기
	10	노트하기의 중요성과 노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1	중요한 내용 찾아내기 (강조내용, 예시문, 목표 등)
	12	구체적인 노트기법 네 가지 익히기
	13	수업 후 노트 정리 기술과 노트하기 연습
과제해결 기술	14	읽기가 도움을 주는 점과 읽기의 5단계 방법
	15	읽기 기술의 연습 (짧은 글 읽고 물음에 답하기)
	16	읽기 기술의 연습 (긴 글 읽고 물음에 답하기)
	17	읽기의 5단계에 따라 읽고 이해도 점검하기
	18	짓기 과제를 작성의 5가지 원칙과 낱말 실력기르기
	19	짓기 7단계 익히고 실제로 글 지어 보기
시험치기 기술	20	시험공부의 필요성과 자신의 시험공부 방법 반성
	21	시험의 준비 방법 알고 계획 세우기
	22	시험지를 풀어 가는 단계와 시험 후의 분석
	23	주관식시험 치르는 방법과 객관식시험 치르는 방법
	24	진정한 실력 파악하기와 사례에 등급 매기기
정보처리 기술	25	정보처리의 의미, 기억회상을 향상시키는 방법
	26	정보의 기억을 위한 방법 I
	27	정보의 기억을 위한 방법 II
	28	글 내용의 분류, 시각화, 공통점 찾기, 도표 그리기

#### 4. 연구 절차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실험 전 동질성을 검증하고 실험 후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1주일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학습습관 검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2005년 9월 9일부터 2005년 10월 14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1주에 5회, 1회에 40분씩 학습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방법은

교사용 매뉴얼 및 아동용 학습활동지에 기초해서 앞에서 제시한 각 차시별 순서에 따라 앞 차시에 배운 내용의 복습→ 본시 학습활동 →정리활동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훈련이 끝나면 각각의 하위영역을 학교와 가정에서 적용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나머지 통제집단에게는 사전, 사후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사전검사와 동일한 학습습관 검사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실시한 다음 결과를 분석하였다.

### 5.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간별로 사전·사후 검사로 분류하고, 각 검사의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며, SPSSWIN(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학습 습관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 집단 (n=21)		2.81	.64	3.58	.48	.77	-4.444***
통제 집단 (n=21)		2.92	.36	2.93	.40	.02	-.142

\*\*\*p<.001

<표 III-1>을 보면 학습습관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2.81)에 비해 사후검사(M=3.5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444, p <.001). 통제집단 역시 사전검사(M=2.92)에 비해 사후검사(M=2.93)에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42, p>.05$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학습습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훈련이 학습습관 하위 요소별로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의집중행동에 미친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습관의 하위 요소인 주의집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주의집중행동 전·후 검사결과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 집단 (n=21)	3.31	.73	3.97	.67	.66	-3.070**
통제 집단 (n=21)	3.23	.42	3.27	.63	.05	-.248

\*\*p<.01

<표 III-2>를 보면 주의집중행동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3.31)에 비해 사후검사(M=3.9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070, p<.01$ ). 통제집단 역시 사전검사(M=3.23)에 비해 사후검사(M=3.2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248, p>.05$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주의집중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습기술적용행동에 미친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습관의 하위요소인 학습기술적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III.3을 보면 학습기술적용행동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2.61)에 비해 사후검사(M=3.4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4.444, p<.001$ ).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2.73)에 비해 사후검사(M=2.62)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776, p>.05$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학습기술적용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3> 학습기술적용행동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 집단 (n=21)		2.61	.65	3.45	.58	.84	-4.444***
통제 집단 (n=21)		2.73	.42	2.62	.47	-.11	.776

\*\*\*p<.001

### 3) 자율학습행동에 미친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습관의 하위요소인 자율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자율학습행동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 집단 (n=21)		2.50	.80	3.32	.49	.81	-3.987***
통제 집단 (n=21)		2.79	.49	2.91	.47	.11	-.774

\*\*\*p<.001

<표 III-4>를 보면 자율학습행동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2.50)에 비해 사후검사(M=3.3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87, p <.001). 통제집단 역시 사전검사(M=2.79)에 비해 사후검사(M=2.91)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774, p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자율학습행동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학습기술 훈련을 실시한 후 학습습관의 변화를 측정된 결과 유의한 향상을 가져온 김은희(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습관과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를 한 강태용(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년인 4학년 학생들에게도 학습기술훈련이 효과가 있는지를 밝힌 권용환(2004)의 연구에서 구체적 조작기의 발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학습기술훈련을 통해 학습기술이 부족하여 좋은 학습습관을 갖지 못했던 학습부진

아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그 기술들이 누적되어 내면화가 이루어지면서 올바른 학습습관으로의 개선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학습기술훈련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 습관들여진 학습습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학습기술훈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집단 (n=21)		2.78	.56	3.57	.32	.79	-5.633***
통제집단 (n=21)		2.76	.54	2.69	.51	-.07	.134

\*\*\*p<.001

<표 III-5>를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M=2.78)에 비해 사후검사(M=3.5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633, p <.001).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2.76)에 비해 사후검사 (M=2.69)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34, p >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훈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 요소별로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전략에 미친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인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학습전략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 집단 (n=21)		2.90	.67	3.53	.34	.64	-3.887**
통제 집단 (n=21)		2.69	.57	2.70	.52	.01	-.031

\*\*p<.01

<표 III-6>을 보면 학습전략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2.90)에 비해 사후검사(M=3.5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887, p <.01). 통제집단 역시 사전검사(M=2.70)에 비해 사후검사(M=2.7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31, p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학습전략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학습동기에 미친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인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학습동기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 집단 (n=21)		3.10	.71	3.87	.50	.76	-4.016***
통제 집단 (n=21)		3.09	.75	2.90	.77	-.19	.809

\*\*\*p<.001

<표 III-7>을 보면 학습동기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3.10)에 비해 사후검사(M=3.8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016, p <.001).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3.09)에 비해 사후검사(M=2.90)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809, p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학습자아개념에 미친 영향

학습기술훈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소인 학습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표 III-8> 학습자아개념 전·후 검사결과

집단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사후-사전)	t
		M	SD	M	SD		
실험집단 (n=21)		2.35	.75	3.32	.42	.98	-5.191***
통제집단 (n=21)		2.49	.56	2.46	.53	-.02	.134

\*\*\*p<.001

<표 III-8>을 보면 학습자아개념 검사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M=2.35)에 비해 사후검사(M=3.3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191, p <.001). 통제집단은 사전검사(M=2.49)에 비해 사후검사(M=2.46)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34, p >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은 학습자아개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효과적임을 연구한 박선영(2004)의 결과와 일치하며,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을 받은 학생이 집단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점수가 높게 나타난 우옥연(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학습기술훈련을 하고 그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변화를 관찰한 김정현(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로 즉 학습기술훈련을 통해 학습기술이 부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지 못했던 학습부진아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써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던 기존의 학습습관이나 학습능력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습부진아들에게 학습기술훈련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연구이다. 부산시 소재의 G초등학교 4학년 아동 중 ‘교육청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4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학업성취도가 60%미만인 학습자이면서 성적이 하위 20%이하인 아동 42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21명씩 배치하고 전·후 검사를 통해 학습기술훈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기술을 향상시켜 학습습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학습습관 사전검사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학습기술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계획·점검하고 학습자료 및 학습공간을 조직하며, 자신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리하고 수업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변환시키도록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의 잘못 들여진 학습습관을 바람직하게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기술을 향상시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전검사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아개념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학습기술훈련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자신이 모르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학습 자세를 견지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며,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학습기술훈련을 통해 학습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들이 누적된다면 학습부진아에게 개인적으로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그 내면화는 학습습관의 변화로 이어져 교사나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기술훈련은 초등학교시기에 학습습관이나 학습방법에 관한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습

관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여러 상황 속에서 학습기술이 결여되어 학습문제를 일으키는 학습부진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기술훈련에 참여한 아동들은 부산 지역의 G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2명(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21명씩)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인 4학년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나, 다른 연령의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정의적 영역의 특성상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간의 훈련으로 변화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횟수와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었으므로 좀더 장기적인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태용(2002).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 학습동기,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부산대학교 대학원.
- 교육부(1999).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 교육부.
- 권응환(2004).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경남대학교 대학원.
- 김남옥(1991). 학습부진아에 대한 진단적-치방적 학습기술 훈련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은주(1998). 초등학생의 학업수준에 따른 학습기술간의 차이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희(2004).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철(1998). 학습부진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기술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현(2004). 학습기술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

- 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숙·이혜선(1976).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태도, 학습습관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박선영(2004). 학습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한숙(2000).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태도,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 부산대학교 대학원.
- 변영계·김석우·박한숙(1999).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습기술 검사의 개발. **교육평가연구**, 12(2), 103-125.
- 성윤득(2001).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기술과 학업성취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정미(1993). 학습부진아의 성격특성과 학습기술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옥연(2004). 학습기술향상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습기술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영선(2000).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기술 활용과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화춘(1998).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기술 활용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Arthur, A. D.(1994). Differences between EDPSY 100 and non-EDPSY 100 students on study skills measured by LASS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Bloom, B. S.(1971).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 Delucchi, J. J., Rohwer, W. D., & Thomas, J. W.(1987). Study time allocation as a function of grade level and course characteristic.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2, 365-380.
- Fralick, K. G.(1990). Study skills : A junior high/middle school integratec urriculum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Gall. M. D., Gall, J. P., Jacobsen, D. R., & Bullock, T. L.(1990). *Tools for Learning*. Alexandria, Virginia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Hurlbert, G. (1985). Study habits and attitudes of Indian student : Implication for counselor involve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272349*.
- Rothkopf, E. Z.(1988). Perspectives on study skills training in a realistic instructional economy. In C. E. Weinstein, E. T. Goetz, & P. A. Alexander(Eds.),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pp.275-286). N.Y.: Academic Press.
- Zimmerman, B. J., & Pons, M. M.(1986). Development of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4), 614-628.

## The Effect of Study Skills Training on Study Hab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derachievers

Park, In-Ju

Busan Kwang-an Elementary School

Park, Nam Su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effect of study skills training on study habit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derachiever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cholastic Aptitude Test by the Office of Education' on 4th grade students at G Elementary School in Busan and selected 42 children whose academic achievement in four subjects (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ies and science) was less than 60% and whose record belonged to the lowest 20%. Assigning 21 of them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another 21 to the control group, we tested the effect of study skills training program through a pre-test and a post-test. The study skills training program used in this study was prepared by modifying the study skills training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developed by Byeon, Yeong-Gye and Park, Han-Suk(2000) fittingly to the cognition level of 4th grade underachiev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kills training was effective in changing underachievers' study habits in a desirable way by improving their study skills.

Second, the study skills trai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underachiev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y improving their study skills.

Accordingly, it is concluded that study skills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study habit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underachievers.

Key words: Study Skills Training, Underachievers, Study Hab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

논문 접수: 2006. 5.15    심사 시작: 2006. 5.20    게재 확정: 2006. 6. 25